

9. 彦根・히코네



1. 地域概観・지역개관

朝鮮国王が日本の武家政権に対して派遣した外交使節団朝鮮通信使はソウルと江戸との間を10回往復しました。彦根での宿泊所の一つである宗安寺は、朝鮮通信使の三使の宿泊所に指定されていました。

彦根の宿泊は毎回、彦根藩主の井伊家へ接待が命じられました。彦根では藩を挙げて準備し、藩士だけでなく城下町や周辺の村に住む民衆も関わりました。主な準備は宿泊場所整備、食事の準備、藩領内の通行するため道路の整備です。そのほか荷物の運送についても幕府から割り当てが命じられており彦根藩は往路は彦根から大垣まで、復路は彦根から守山までと、彦根を出発して一日で進む区間

조선국왕이 일본의 도쿠가와 정권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가 조선과 에도 사이를 왕복한 것이 총 10회이다. 히코네는 10회 모두 숙박지였다. 히코네의 숙박소 중 하나였던 종안사(소안지)는 삼사 일행의 숙박 장소였다

히코네에서의 숙박은 모두 히코네 번주인 이이가문에게 접대가 배정되었다. 히코네에서는 번 전체가 동원되어 준비하였다. 접대 준비는 번사(이이가문의 가신들이자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죠카마치나 주변 마을 주민들도 함께 했다. 주로 숙박소의 정비, 식사 준비, 번 관할 지역의 도로 정비를 하였다. 이외에 화물 운송도 할당되었다. 에도로 갈 때는 히코네에서 오가키까지, 돌아오는 길은 히코네에서 모리아마까지 담당했다. 그리고 히코네에

の馬を調達しました。

宿泊当日、三使の応接を担当したのは家老ら重臣でした。家老の木俣守安(第3回から—6回)、岡本宣就(3回—5回)重臣の戸塚正鐘(4回—6回)が応接し、宴席で彼らと親しく交流をもったことが使節の記録にも記されています。

井伊家当主は江戸城で通信使が將軍に對面するときに列座する任務があるため、四回目1636年以降はいつも江戸詰めで彦根を不在にしていました。第三回には当主井伊直孝は彦根にいて準備中の応接所に自ら出て点検していたといいます。

「使行録」を見ると彦根からの接待は他の場所での接待とは異なるレベルでした。一つは設備と調度が整っていたり、豪華であったというもので、もう一つは接待の丁寧さです。ハード面とソフト面の両面で彦根藩による応接がすぐれていたと感じたようです。

第6回(1655年)往路、副使金東溟の「海槎録」には「明歴元年九月十七日条、宿所の建物は広く、花が飾られ、揃えられた食事が立派なことは他の宿泊地には見られない。香炉、机、煙草の諸具などは皆金銀が用いている。この国ではもともと匙を使っていないが、一行のために銀の匙と銀の踏煙管を造り、中官以上の皆に提供してくれた。また、冬服を作って下輩へ支給してくれた。36羽もの雉が提供され柑橘の果物が山積されてでさ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

서 하루 길 구간의 말을 조달했다.

숙박 당일 삼사의 접대를 담당한 것은 이이 가문의 중신들(가로)이었다. 중신으로 키마타 모리야스는 제3회부터 6회까지, 오카모토 노부나리는 3회부터 5회까지, 토즈카 마사카네는 4회부터 6회까지 접대에 응했고, 연회에서 삼사들과 친교를 가진 기록이 있다.

히코네 당주 이이 나오타카는 에도성에서 통신사가 장군을 만날 때에 배석하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4차인 1636년 이후 항상 에도에 있었고 히코네에는 부재중이었다. 1624년 제3회 때는 히코네에서 준비를 점검했다고 한다.

사행록을 통해 보면, 히코네에서 받은 접대는 다른 곳의 접대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하나는 설비와 집기가 정돈되어 있고 호화로웠다는 것, 또 하나는 정성을 다한 접대였다는 것이다.

준비와 대접 양면에서 히코네번의 응접이 뛰어났다

1655년 제6차시 방문한 부사 김동명의 「해차록」에는 ‘메이레키 원년 9월 17일, 숙소 건물은 넓고, 꽃이 장식되어 있고, 준비된 식사의 훌륭함은 타 숙박지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향로, 책상, 담배 등의 여러 도구는 전부 금과 은이 사용되었다. 이 나라는 원래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 은수저와 은제 담배곽을 준비해 중관 이상 모두에게 제공했다. 또 동복을 만들어 하급 관원까지 지급했다. 36마리의 꿩이 제공되고, 감굴이 산터미처럼 제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関連人物・관련인물

井伊直孝・이이 나오타카

井伊直孝(いいなおたか)は安土桃山時代に誕生し江戸時代前期までを生きた武将、譜代大名です。彦根城の築城者。掃部頭(かものかみ)。直政の二男。大坂冬・夏の陣に活躍で5万石を加増され、その名を轟かせたのです。いつしか、彼はその猛将ぶりから「井伊の赤牛」、もしくは彼の役職名の掃部頭(かものかみ)から「夜叉掃部」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家光からも信頼を寄せられた直孝は、石高は家康以来仕えている譜代大名の中でもトップの30万石を与えられていました。秀忠・家光・家綱三代に仕え、草創期にある幕政を補佐しました。

이이 나오타카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태어나 에도 전기까지 활동한 무장이자 후다이 다이묘(에도시대 전후 영주의 가문 격식의 하나,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이었던 자)로 도쿠가와 집안을 섬긴 영주이다. 히코네성의 축성자이다.

관직명은 카몬노카미이다. 나오마사의 차남으로 오사카 겨울 전투와 여름 전투에서 활약하여 5만석의 영지를 추가로 하사받아 그 이름을 떨쳤다. 그 용맹함으로 '이이의 적우(赤牛)' 혹은 그의 관직명인 카몬노카미에서 딴 '야차카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에미즈가 신뢰한 나오타카의 영지는 후다이 다이묘 중에서도 가장 많은 30만석을 받았다. 히데타다·이에미쓰·이에 쓰나 3대를 섬기면서 에도 막부 초창기부터 막부 정치를 보좌했다.



井伊直孝肖像・이이 나오타카 초상

コラム・칼럼

♣招き猫の由来・손님 부르는 고양이 유래♣

幕府重臣となった彦根藩主 井伊直孝が、ある時、鷹狩りへと出かけました。その帰り道、とあるさびれた寺の前を通りかかると、門の前に一匹の白い猫がいるのを見つけました。その猫が手招きするようなしぐさをしてみせたので、直孝がその寺に寄ってみたところ、急な雷雨となっていました。猫のおかげで濡れずに済んだ直孝ですが、そこで雨宿りしながら住職と話をしているうちに意気投合します。そして、後に直孝の寄進により、この寺は立派な寺となり井伊家の菩提寺にもなったのでした。寺の名は、「豪徳寺」と言います。東京都世田谷区にあり、小田急線の駅名にもなっている寺です。この寺名は、直孝の法名「久昌院殿豪徳天英大居士」に由来しています。直孝を招いたこの白い猫が亡くなると、住職は手厚く弔いました。

この後、この猫の手招きが演義を呼び寄せたとして招猫堂が建てられ、その猫は「招福猫児(まねきねこ)」と崇められるようになりこの豪徳寺が招き猫の発祥の地と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他にも諸説があります)。

引用:<https://wondertrip.jp/102066/>

막부의 중신이 된 히코네 번주 이이 나오타카가 어느날 매 사냥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초라한 절 앞을 지날 때 문 앞에 흰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고양이가 손짓하는 듯한 몸짓을 해 나오타카가 무심코 절에 들렀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렸다. 고양이 덕분에 젖지 않고 비를 피하며 주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기투합이 되었다. 이후 나오타카의 기부로 이 절은 훌륭한 절이 되었고 이이 집안의 보리사(한 집안에서 대대로 장례를 지내고 조상의 위패를 모sier 명복을 빌고 천도와 축원을 하는 절)가 되었다. 이 절의 이름은 호덕사(고우토쿠지)라고 한다. 도쿄도 세타가야 구에 있으며, 오다큐선의 역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절이다. 이 절의 이름은 나오타카의 범명인 “구창원전 호덕천영대거사”에서 유래되었다. 나오타카를 부른 하얀 고양이가 죽자, 주지스님은 극진히 명복을 빌었다.

그 후, 이 고양이의 손짓이 연의를 불러들인다 해서 마네키네코 당을 세웠고, 그 고양이는 “복을 부르는 고양이”라고 숭앙받게 되었고, 호덕사(고토구지)는 마네키네코의 발상지가 되었다고 한다(여러 설 있음)

인용: <https://wondertrip.jp/102066/>

3. 疲れ取りの宿・ 숙소



1. 宗安寺・소우안지

宗安寺は観光客で賑わう「夢京橋キャスルロード」に面した、浄土宗の寺院です。朱に塗られた「赤門」と、もうひとつこぢんまりとした「黒門」。資料では朝鮮通信使の接待のためとはいえ、猪や鹿肉など肉を仏寺の正門である「赤門」から運び込むことはどうかということで、新たに勝手口のような「黒門」が作られ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した。

書院は、1903(明治36)年に改築縮小されましたが、朝鮮通信使が出入りした大玄関は1839(天保10)年に建造されたままの状態に残されています。『檜の会』の会報には、「朝鮮通信使の三

종안사(소우안지)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유메쿄바시 캐슬로드(유메쿄바시상점가)”에 접한 정도종의 사찰이다. 주홍색의 아카몬(적색문)과 아담한 또 한 개의 문인 쿠로몬(흑색문)이 있다. 자료에서는 조선통신사의 접대를 위한 멧돼지나 사슴 고기를 사찰 정문인 아카몬을 통해 운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 주방으로 통하는 쿠로몬을 만들었다고 한다.

서원(천백원) 건물은 1903년에 개축 축소됐지만 조선통신사가 출입한 큰 현관은 1839년에 창건된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使の部屋は、書院奥の間で、そこには特別の書簡台を設けられ朝鮮国王からの国書が置かれ、またこの部屋の近くには、国書をのせて運ぶ輿の輿置所が設置された。…中略…

本堂の本尊は幕で覆われ見えなくして、すべて上官たちの居所や対馬藩役人の詰所に使用された。」

通信使随行員の記録によると「宗安寺の屏風・布帳・什物(じゅうもつ)の華麗さは、陸路通って来た中で最上であり、食事には銀の匙(さじ)が用意され、その他提供される設備も全く豊富である」と『奉使日本自聞見録』1748(延享5)年曹蘭谷著)に書かれています。朝鮮通信使は彦根を宿泊地としていたので、現在でも宗安寺の周辺には当時の面影を残す寺があり、通信使の人たちの宿所にあてられたものもあります。

『히노키노회』 회보에는「조선통신사의 삼사의 방은 서운(천백원) 안에 특별히 마련한 서간대에 조선 국왕의 국서를 두었고, 또 이 방 근처 가까이 국서를 싣고 나르는 가마를 두는 가마 안치소를 만들었다. <중략> 본당의 본존은 천으로 덮여 보이지 않게 하고, 모두 상관들의 거처와 쓰시마번 관리의 대기소로 사용되었다」

통신사 수행원의 기록에 의하면 “종안사(소우안지)의 병풍·휘장·집기의 화려함은 육로를 통해 온 것 중 최상이며, 식사시 은수저가 준비되어 있고, 기타 제공되는 설비도 정말로 풍부했다”고 『봉사일본자문견록』에 쓰여 있다.

조선통신사는 히코네를 숙박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도 종안사(소우안지) 주변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절이 있고, 통신사의 숙소가 되었던 곳도 남아있다.



書院(天白院)・서원(텐파크인)



宗安寺 赤門・소우안지 아카몬



宗安寺 黒門・소우안지 쿠로몬



江国寺の三門・코우코쿠지 산문



江国寺本堂の扁額・코우코쿠지 본당 편액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1. 江国寺扁額・소우코쿠지 편액

1748(延享5)年江国寺の朝鮮通信使に関する史料によると、江国寺は使節団の彦根滞在時に長老宿になっています。

この寺には1655(明暦元)年の朝鮮通信使による文字が扁額として残されています。「江国寺」と大きく書かれた文字の左側に「朝鮮国雪峯」の署名があるものです。雪峯は、1655年の使節団の写字官(書の達人)金義信(キムイシン)の号です。

朝鮮通信使の休憩所や宿泊所には文化交流を求める人々が訪れました。朝鮮通信使は、朝鮮の文化を日本に伝えるため、訪問者に誠実に対応しました。朝鮮からの使節団は、国どうしの外交というだけでなく、民間の交流も生んだのでした。江国寺の扁額の文字も、こうした民間交流が残した一例と考えられます。

1748년 조선통신사에 관한 사료에 따르면 강국사(소우코쿠지)는 사절단의 히코네 체류시에 삼사의 숙소였다.

이 절에는 1655년 조선통신사가 남긴 현판 글씨가 남아 있다. 「강국사」라고 크게 쓰여진 글자 왼쪽에는 「조선국설봉」이란 서명이 있다. 설봉은 1655년의 사절단 사자관으로 글씨의 달인인 김의신의 호다.

조선통신사의 휴게소와 숙박소에는 문화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하기 위해 방문자들에게 성실하게 대응했다. 조선에서 온 사절단은 국가끼리의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했다. 강국사의 현판 문자도 이러한 민간 교류가 남긴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江国寺 扁額・소우코쿠지 편액

2. 望湖堂と扁額・망호당과 편액

摺針峠からの琵琶湖のながめは中山道随一の景色といわれ、朝鮮通信使の記録にも景色の良いところとして記録されました。使節たちの使行日記・記録には、鞆の浦(広島県福山市)、清見寺(静岡県静岡市)と摺針峠(滋賀県彦根市)の三か所を名勝地として、その景勝を詠いあげた詩文が多数あります。

1711年往路, 任守幹の『東槎日記』

「十月四日条、彦根を出發すると二つの大峰を進む。峰に茶屋がある。望湖という。山下の太湖を望見すると水が満ちて天に浮かんでいるようで、広く遠い景色は岳陽楼と並ぶほどの壮観さである」

1719年復路, 申維翰『海游録』

「十月二十七日条、摺針峠を進むと、峰の上に一堂がある。望湖という。軒下に扁額があり1711年の写字官の筆である。壁の上に額があり、そこにも同年の従事官の書がある。三使が休憩をとるので私もそれに従った。琵琶湖を俯瞰すると果てしなく広く、爽やかで広々とした気持となる。遙るかに一つの島を望むことができる。」

1748年復路, 曹蘭谷の『奉仕日本時間見録』

「六月二十五日条、摺針峠を登ると頂上に亭があった。扁額に望湖亭と掲げる茶屋である。超然とした孤亭が琵琶湖に臨んでおり、その水は果てしなく広く、孤島が点々と絵のようである。帆掛け船の往来や水鳥の上下は絶勝の境界といえる。辛卯(正徳元)年、己亥(享保4)年に三使や写官らが贈った詩や書があり、金屏風に貼

스리하리 고개에서 비와호를 바라본 경치는 나카센도 제일의 경치였으며, 조선통신사의 일기에도 경치가 좋은 곳으로 기록되었다. 통신사 사절단의 사행 일기나 기록에는 토모노우라(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세이켄지(시즈오카현 시미즈시)와 스리하리고개(시가현 히코네시) 세 곳의 빼어난 모습을 노래한 시문이 다수 있다.

1711년(제8차) 사행에 참여한 임수간이 쓴 『동사일기』의 10월 4일 기록에 ‘히코네를 출발해 두 개의 큰 봉우리로 나아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망호라고 한다. 산 아래 큰 호수를 보니 물이 가득하고 하늘에 떠 있는 듯하여, 넓고 먼 경치는 악양루와 나란히 견줄 정도로 장관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1719년(제9회) 사행에 참가한 신유한이 쓴 『해유록』의 10월 27일 기록에 ‘스리하리고개를 지나자, 산 위에 건물 하나가 있다. 망호라고 한다. 처마 밑에 현판이 있으며, 1711년(제8회)에 방문한 사자관의 글씨다. 벽 위에도 같은 해 종사관의 글씨가 있다. 삼사가 휴식하므로 나도 그에 따랐다. 비와호를 내려다 보니 과연 넓고 시원하여 널찍한 기분이 든다. 멀리 섬 하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

1748년(제10회) 사행에 참여한 조난곡은 『봉사일본시문견록』의 6월 25일 기록에, ‘스리하리고개를 올라가니 정상에 정자가 있다. 망호정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는 휴게소다. 초연한 정자가 비와호를 따라 있고, 그 물은 끝없이 넓고 외딴섬이 점점이 그림 같다. 돛단배 왕래나 물새들이 나는 모습은 절경이라 할 수 있다. 1711년(제8회), 1719년(제9회)에 삼사나 사관들이 준 시와 글이 있고,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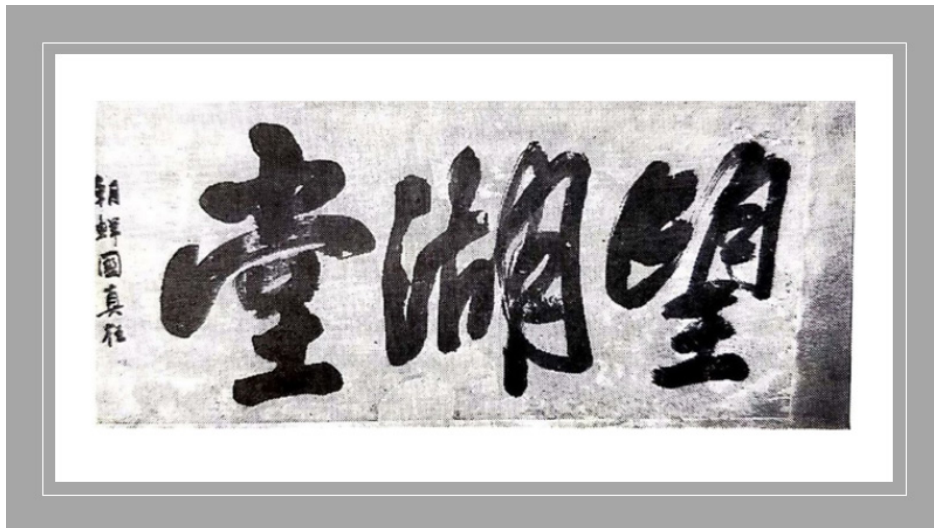
り付けたものや錦の掛軸に仕立ててある。主の田中豊がこれを先例として訳官を通じて三使に筆跡を求めたので、それぞれ絶句一首ずつ書いて贈った。」

1768年正使・趙曦(チョオム)『海槎日記』「日東(日本)の名勝について、すでにたびたび記したが、もし第一をいうなら鞆の浦と清見寺とが雄を争うだろう。望湖楼(堂)もまた、その次になるだろう」と記した。通信使一行は、江戸への往還では、第一回以来必ず峠の茶屋で休憩しました。峠の「望湖堂」には、趙曦ら使節だけでなく、訪れるたびに残した先行の使節たちの書画が数多く存在していました。残念ながら、正使・趙曦が詠った七言絶句の詩をはじめ、「望湖堂」に存在した通信使たちの書画を掲載した書物は1991年11月、失火により「望湖堂」は倉もろとも全焼したといえます。

병풍에 붙인 것이나 비단 족자로 만들어져 있다. 주인 다나카 유타카가 이를 선례로 역관을 통해 삼사에게 필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각각 절구 일수씩 써서 주었다.'라고 기록했다.

1764년(11차)의 정사 조엄은 『해사일기』에서 「일본의 명승에 대해서 이미 모두 적었는데, 만약 으뜸으로 친다면 도모노우라와 청견사가 자웅을 다툴 것이다. 망호루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 했다. 제1회 통신사 이후 일행이 에도에서 돌아올 때 반드시 고개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고개에 있는 「망호당(보우코도우)」에는 조엄 등 사절뿐만 아니라 방문할 때마다 남긴 선형 사절들의 서화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정사 조엄이 읊은 칠언 절구의 시를 비롯한 망호당에 존재한 통신사들의 서화, 서적은 1991년 11월, 실수로 일어난 화재로 함께 불에 탔다고 한다.



燒失前望湖堂にのこされていた通信使の扁額
소실 전 망호당(보우코도우)에 남겨진 통신사 현판

コラム・칼럼

♣ 摺針地名の由来・스리하리 지명의 유래 ♣

摺針の地名は、空海(弘法大師)の若き修業時代の伝説から名付けられたといえます。

若い僧が厳しい修行に耐えかねて故郷に戻る途中、日暮れ時に峠にさしかかり、山中の一軒家に一夜の宿を乞う。ふと見ると、老女が斧を研いでいる。二人の視線がぶつかる。「一本しかない針が折れたので、斧を研いで針を作るのじゃ」と老女が言う。

若い僧は自分の浅はかさを悟り、寺に戻って修行を続ける。老女は観音菩薩の化身、僧は若き日の弘法大師と言われています。

스리하리라는 지명은 쿠우카이스님(홍법대사)이 젊은 시절 수행했을 때 유래된 전설에서 붙여졌다.

젊은 승려가 힘든 수행을 견디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질녘 고갯마루에 올라 산중 외딴 집에 하룻밤 묵어가는 것을 요청했다. 문득 보니 노파는 도끼를 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노파가 '하나밖에 없는 바늘이 부러져,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젊은 승려는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절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하였다. 노파는 관음보살의 화신, 승려는 젊은 날의 홍법대사라고 전해진다.

♣ 別の逸話・다른 이야기 ♣

むかしむかし、菅原道真が天拝山と太宰府との間を移動していたとき、道端で老人が釘のよ用に太い鉄を砥石で研いでいました。

道真が「おまえは何をしているのか?」と尋ねましたら、老人は「針を作っているんです。」と答えました。道真は太い鉄から針を作ろうとしている老人にいたく心を打たれ、まだまだ私も精進せねばと反省の念を抱いたそうです。そして、道真は「この地を針摺と名付ける」と言ったそうです。

옛날 옛적에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덴바이산과 다자이후 사이를 이동하고 있을 때 길가에서 노인이 못처럼 굵은 철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미치자네가 '당신 무엇을 하고 있소?'라고 묻자, 노인은 '바늘을 만들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미치자네는 굵은 철로 바늘을 만들려는 노인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 '나의 정진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라고 반성하며, 미치자네가 이곳을 스리하리라고 부르자고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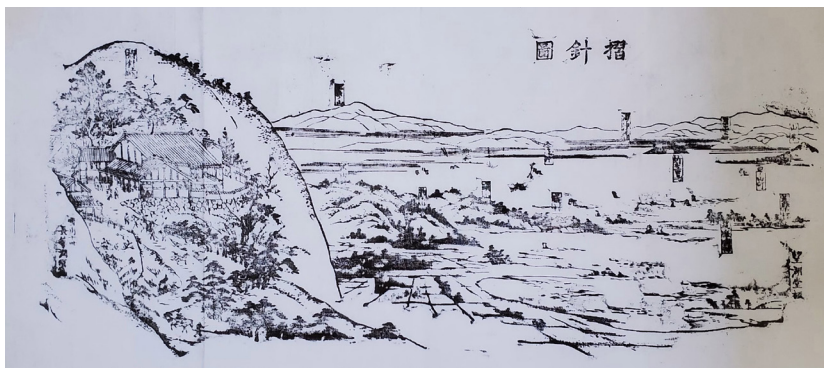
2. 歌川広重の摺針浮世絵・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스리하리우키요에



摺針峠(滋賀県彦根市蔵)・스리하리고개(시가현 히코네시 소장)

磨針峠を描いた歌川広重の浮世絵では、籠から出てきて一服する人、ござを敷いた二人連れなどがしばしの憩いをとっています。眼下には松林に囲まれた内湖に、一隻の帆船が浮かび、その背後に琵琶湖が描かれています。これは近代に干拓されるまで入り江があったためです。この入り江があった辺りは現在の地名も「入江」です。もしかして、多くの旅人が望湖堂から琵琶湖を一望しながら、西から東へ行く旅人はこれから始まろうとする山中の長い道中を思案したり、東からやってきた旅人は、京都に近づき、「ほっと」した息遣いが伝わってくるようです。

“스리하리 고개”를 그린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우키요에에서는 숙소에서 나와 차를 한잔 하는 사람과 돛자리를 펴고 두 사람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눈 아래로 송림으로 둘러싸인 안쪽 호수에 범선 한 척이 떠있고 그 뒤로 비와호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근대에 간척되기 전까지 강어귀(入江)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강어귀(入江)가 있던 주변은 현재 지명도 “이리에(入江)”이다. 아마도 많은 나그네가 망호당에서 비와호를 바라보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나그네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산중 먼 길을 생각하고, 동쪽에서 온 나그네는 교토에 점차 가까워져 안심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



磨針嶺から美濃路・彦根の眺望・스리하리 고개에서 본 미노길과와 히코네 조망

コラム・칼럼

京都国際中学校秋季野外授業
～雨森芳洲庵へ(2019年11月1日)

中学生の秋季野外授業として滋賀県長浜市高月町にある「雨森芳洲庵」に行きました。高月町の出身で26歳で対馬にわたり、朝鮮通信使の通訳として活躍した、雨森芳洲先生のお話を、館長の平井茂彦先生からお聞きしました。平井先生が描かれた絵を見ながら、わかりやすく説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平井先生は雨森芳洲先生が61歳の時に書かれた『交隣提醒』を小学生にも読めるように編集されました。

その中のひとつを紹介します。

「日本と朝鮮とは何事によらず風習(慣習)が異なり好みもそれに応じて異なりますから、こういうところに理解なく日本の風習で朝鮮人と交わることからくる食い違いが多く起こるので。このほかにも日本でよいと考えることを朝鮮人はよくないと考え、日本ではよくないと考えることを朝鮮人はよいと考える事柄は限りなくあるので、朝鮮外交にたずさわる人々はこのようなところを心に用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交隣提醒』は隣の国、朝鮮との交わりの中で心がけなければならぬことを54か条にまとめて対馬の藩主に出されたものです。

現在の私たちにとっても、日韓友好を築いていくうえでとても大切な考え方ですね。

교토 국제중학교 추계 야외수업
～아메노모리 호슈 암자에～

중학생의 추계 야외수업으로 시가현 나가하마시 다카쓰키초에 있는 「아메노모리 호슈 암자」를 다녀왔다. 다카쓰키 마을 출신으로, 26세 때 쓰시마에 건너가 조선통신사의 통역으로 활약한 아메노모리 호슈 선생님의 이야기를 관장이신 히라이 시게히코 선생님께 들었다. 히라이 선생님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히라이 선생님은 아메노모리 호슈 선생님이 61세 때에 쓴 『교린제성』을 초등학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그 중 한 부분을 소개한다.

「일본과 조선은 어떤 것이든 풍습(관습)이 다르고 취향도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 없이 일본의 풍습으로 조선인과 어울리면 차이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선인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일본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선인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무궁무진하므로, 조선 외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교린제성』은 이웃 나라 조선과 교제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을 54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대마도번주에게 제출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한일 우호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東アジア交流ハウス（芳洲庵）の研修室と展示室
동아시아 교류하우스(호슈암자)의 연구실과 전시실



東アジア交流ハウス（芳洲庵）と、その館を訪れる日韓の若者たち(JR北陸線高月駅下車タクシーで15分)